

미 민항기 북영공 통과 항로 건교부서 불허

북한이 미국의 델타, 노스웨스트 등 2개 민간항공사의 서울행 정기노선에 대해 북한영공 통과를 처음으로 허가했으나 우리측이 북한과의 관계협정 미체결 등을 들어 이 항로를 불허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북한측은 지난달 29일 이들 미국 항공사가 포틀랜드~일본~서울 항로를 단축항로(최대 1시간8분단축)인 포틀랜드~블라디보스톡~평양 비행정보구역(FIR)~서울 항로로 바꾸기 위해 신청한 평양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시험비행을 허가했다고 이들 항공사가 지난 5일 우리측에 알려왔다. 시험비행은 정기운행에 앞서 여객이나 화물 없이 조종사만으로 항로를 시험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바로 정기운행이 개시된다.

건교부는 항공기의 항로이탈 방지 등 안전운항을 위해 대구 항로관제소와 항로관제소간에 관계협정이 체결돼 직접통신망을 통한 관계 직접이양이 이뤄지고 단축항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

공 등 우리 국적항공사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들에 개방돼야만 이 항로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은 양국을 거치는 항공기는 양국간에 관계협정이 체결된후 관제를 위한 직통 통신망이 개설돼관계소간 직접관계이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러시아 극동 지역항로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북한측의 입장에 따라 우리가 직접 나서거나 미 항공사들을 통해 새 항로 개설문제를 협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항공화물 운송 협상 부결

일본과 미국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항공화물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일본 정부 관리들이 말했다.

일본 운수성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측이 현재의 항공화물협정이 일본에 크게 불리하다면서 개정을 주장했으며 미국측은 항공화물 서비스를 즉각적이고도 대폭적으로 자유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52년 체결된 불공평한 양국 항공협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미국의 항공화물서비스 자유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항공사의 화물운송 서비스를 아시아지역까지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존의 양국간 민간항공조약이 불평등한 내용으로 돼 있으며 이러한 미국측 항공사의 서비스확대가 양국간 항공사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왔다.

양측은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며 이 협상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

대한항공, 피지 취항 개시

대한항공이 27일부터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취항을 시작했다. 피지는 뉴질랜드 북쪽에 있

는 3백20여개 섬들이 비경을 이루는 나라로 천혜의 자연풍광속에 연중휴양과 수상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관광지다.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 2백73석 규모의 MD 11기종을 투입, 주 3회 운항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대양주 노선에 피지, 호주 브리스번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등 5대 관광지를 주 2회 운항하게 됐으며 총 취항국가와 도시의 수도 28개국, 75개 도시로 늘어났다.

여성 여객기 조종사 탄생합듯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여객기 조종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9월 19일 사내 여직원과 일반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여성 여객기조종사 공개모집을 실시, 8명의 사내 여직원과 4명의 대졸자등 모두 12명의 1차 합격자를 선발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여성 조종사 모집의 합격자들은 오는 11월말 까지 ▲기능적성검사 ▲비행심리적성검사 ▲항공기 시뮬레이터 테스트 ▲신체검사 및 영어구술 시험등의 2차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합격돼야만 본격적인 조종사

교육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부문 ISO획득

아시아나항공은 램프조업, 장비정비부문 등을 포함한 지상조업 전 부문에 대해 ISO 9002를 획득했다.

아시아나측은 지난해 11월 항공사업 전부문에 대해 ISO 9002를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지상조업 부문에서도 국제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항공사, 보잉최신기 도입. 기체 정비서 협력

전일본공수, 일본항공, 일본에어시스템(JAS)등 일본내 항공3사는, 미국 보잉사의 최신항공기 「B777-200」을 연말부터 내후년에 걸쳐, 국내선에 순차 도입한다. 3사가 같은 형의 여객기를 보유하는 것은 거의 4번째기만이라고 한다.

3사는 정비부품이나 격납고의 공유등 유지비용 절감 도모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어, 문자 그대로「럭키 넘버」의 효과가 나

올지에 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3사 중에서 우선 전일공이 10월에 처음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1호기 수령식을 가졌다.

영업에서 심하게 경쟁하는 3사가, 기체정비에서는 스크럼을 짜는 격이다.

울산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 추진

울산공항이 오는 97년부터 국제공항으로 승격돼 3백인승 규모의 대형항공기가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5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활주로 확장공사로 임시 폐쇄된 울산공항을 내년 1월부터 운항을 재개함과 동시에 5백m를 추가확장해 활주로 길이를 2천5백m까지 연장, 97년부터 3백인승의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97년께는 울산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 동남아와 일본직항노선이 개설될 전망이다.

수원공군비행장에 민항기 취항 추진

김포공항에 편중된 수도권의 항공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 공군 비행장에 민항기를 취항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항터미널, 비행기 계류장등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소요되는 50억~60억 원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거나 공항터미널과 백화점·호텔등을 함께 건립하는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1백인승 규모의 민항기 취항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건설교통부는 소음공해 공항청사건립등에 대한 보완책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항 시설 대폭 확장. 중형항공기 취항 가능

군산공항의 각종 시설이 대폭 확장돼 기존의 소형항공기 대신 1백64인승의 중형항공기가 운항되고 운항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단은 10월 7일 지난

해 말부터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 군산공항 확장공사가 이달말로 모두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군산공항의 슬라이딩 게이트 폭을 3.8m에서 52m로 늘어나고 보잉 727기 1대 밖에 계류할 수 없던 계류장도 2대가 동시에 계류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군산지점은 현재 군산-서울, 군산-제주 노선을 취항중인 1백9석의 F-100기를 이달말부터 1백64석 규모의 보잉 727기로 교체운행 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탑승객이 봄비는 명절이나 연휴에도 보잉 727기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파리 제3 공항 건설

프랑스 정부는 10월 11일 다음 세기의 급증하는 서부 유럽 항공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파리에 제3의 공항을 건설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각료회의를 마치고 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파리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을 보완할 제3의 공항 건설 부지 모색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US에어, 유나이티드 및 아메리칸항공과 합병모색

유 에스 에어(US AIR) 그룹은 10월 2일 유나이티드항공 및 아메리칸 항공과 제휴 혹은 합병을 목표로 하는 개별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US에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예비협상의 성격을 가진것으로 양사에 대해 제휴 또는 합병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합병이나 제휴를 추진할지, 아니면 독립적인 회사로 남기위해 자구노력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항공의 모회사인 UAL사는 "협상 성사 가능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US에어에 대한 인수를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메리칸 항공의 모회사인 AMR사는 많은 항공사들과 자주 접촉을 갖고 있다고만 밝혔을뿐 US에어측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레이커, 항공사 신설 채비

지난 77년 저렴한 항공료를 내세워 대서양 횡단노선에 취항, 항공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프레디 레이커경(73)이 브리티시 항공사(BA)등 경쟁사들에게 당한 뼈아픈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최근 또 다시 화려한 취항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레이커경(73)과 그의 오랜 친구인 텍사스 출신 석유기업가 오스카 와이아트 2세는 25일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레이커 항공'사를 출범시켜 플로리다와 영국, 이탈리아와 독일노선에 취항시킬 것이라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취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레이커는 그러나 신설 항공사의 고객유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레이커경이 현재 구상 중인 새 항공사는 적어도 77년 당시 그가 개척했던 값싼 대서양 횡단 운항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당시 레이커경은 BA와 TWA, 과거 팬암등의 항공료 인하공세에 밀려 출범 5년 만에 파산하는 운명을 맞았다.

중동항공사, 향후 20년간 상업용 9백기이상 구입

중동지역 항공사들은 향후 20년간 약 6백억달러를 투입, 총 9백기 이상의 상업용 항공기를 신규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유럽 항공기제작회사인 에어버스사가 북아프리카지역을 포함한 중동지역 19개국(이라크, 이스라엘 제외)의 1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장기구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들 항공사들이 구매할 계획으로 조사된 9백11기의 항공기 가운데 노후 항공기 대체용은 3백41기이며 나머지 5백70기는 모두 항공운송능력 확충을 위한 것이다.

에어버스측은 이와 함께 중동지역이 향후 20년간 항공운송량이 세계 평균보다 0.8%포인트 높은 매년 평균 5.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 취재 전용 HL9223 헬기 도입

중앙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취재전용 헬리콥터를 도입한다.

중앙일보가 보유하게 된 HL9223 취재용 헬리콥터는 세계적인 헬기 생산업체인 프랑스·독일 합작의 유로콥다사가 제작한 AS355N(일명 에퀴레이)기로 쌍발 터빈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6인승의 최첨단 헬기. 취재장비로는 기내에서 기사는 물론 사진전송까지 가능한 디지털 전송장비를 구비해 취재와 동시에 기사·사진을 송고할 수 있다.

한국항공, 열추적장치 헬기로 지상장비 점검 서비스

한국항공이 헬리콥터에 적외선 열상 추적장치를 장착하고 공중에서 지상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사업을 대행한다. 한국항공은 적외선 열상 추적장치를 헬리콥터에 장착, 전국에 산재한 전선의 이상 유무를 헬리콥터에서 녹화, 컴퓨터를 이용해 판정하는 기술을 일본에 이어 개발해 현재 한전과 활용여부를 협의 중이다.